

말라카해협 사립무장 호송선 활성화에 반대

말레이시아 수상, 민간단체 위임시 부작용 보안문제, 인근 3개국 정부에서 관장해야

말레이시아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Abdullah Ahman Badawi)수상은 말라카해협에서의 해적들의 공격에 대비한 일부 선주들의 사립무장호송선(private armed escorts)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논쟁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로이드리스트 최신희에 따르면, 바다위 수상은 지난 5월 하순 네덜란드 방문기간 동안 사립무장 호송선의 시행을 반박하면서 이러한 보안과 안전 문제는 인접국 정부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바다위 수상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안 모니터링을 위임하면 이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항로의 보안문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3개 연안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레이시아 포트클랑항에 정박중인 Glenn Defense Marine Asia의 Glenn Brave Heart 선에서의 보안훈련 실시는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상선대를 보호하기 위한 무장경비대 활용의 도화선이 되었다.

정유 및 가스회사가 동 해협을 통과하는 예인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에서 사립무장 호송선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예인선과 같이 속도가 느린 선박들은 말라카해협 해적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동 해협에서의 선원의 몸값을 바라고 행해지는 납치 및 선박의 납포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보험업자들은 무장호송선을 담보조건의 하나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얀 페터 발케넨데(Jan Peter Balkenende) 수상은 지난 5월21일 말레이시아 바다위 수상과 회합에서 주요항로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주요 수로인 말라카해협의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1월, 네덜란드 예인선 ‘Smitwijs’ 호는 동해협을 지나가다 자동화된 무기를 탑재한 해적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외무부 장관들은 말라카해협의 보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월 인도네시아에서 회합을 가질 예정이다. 회의 의제 중 하나는 사립무장호송선이고 산업계는 장관들이 동 해협에서 해적들의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FEFC 아시아발 화물, 7월 운임 인상 컨테이너 운임 TEU당 250 달러 인상

극동구주항로운임동맹(FEFC)은 7월1일부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북유럽·지중해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을 TEU당 250 달러 인상한다.

아시아·유럽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이 비용 증가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어 운임 인상으로 채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운임인상을 단행한다. 아시아발 컨테이너의 운임 인상은 올들어 1월(TEU당 150 달러), 4월(TEU 당 250달러)에 이어 세 번째이다.

FEFC는 10월1일에 운임인상을 다시 계획하고 있고, 운임 인상폭은 향후 시황을 보며 결정될 전망이다.